

News

4대금융 작년 '역대 최대' 14.5조 벌었다…올해 충당금이 관건

뉴스1

4대 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14조원 넘어서는 사상 최대 실적 거둔 것으로 추정… 대출 성장세 꾸준한데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대금리차 확대되며 은행 부문 수익성 개선 때문
금리 인상 수혜로 호실적 예상되나, 금융당국 압박에 따라 충당금 규모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변수… KB금융, 신한은 나란히 사상 처음으로 4조원 넘는 순이익 거둔 것으로 예상

고승범, “올해 잠재 위기 대응 초점…소상공인 부채 위험 적극 관리”

조선비즈

고승범 금융위원장,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 등을 통해 잠재 위기 가능성 줄이는데 주안점… 단기자금시장과 자산시장 안정성 점검하겠다고 언급
또한 소상공인 부채 대거 부실화될 위험도 관리하겠다 언급…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 흐려지는 흐름 등을 반영해 금융업권별 규제 혁신 제시

하나은행, 마이너스통장 한도제한 복원

연합뉴스

하나은행, 대표 신용대출 상품인 '하나원큐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대출 한도를 연 소득 범위 내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변경하기로…
새해부터 DSR 규제 강화되고 개인 연 소득 범위 내에서만 마이너스통장 대출 취급하면서 신용대출을 투기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수요 줄었다는 설명

금감원, 우리금융·우리은행 종합검사 설 이후로 연장

한국경제

금감원, 25일로 우리금융 검사 중단… 2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간 검사 진행 후 종료키로… 종합검사 마무리 차원에서 최소 인원 두고 보고서 작성 마치겠다는 의도
우리금융은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새로 과점주주에 오른 유진프라이빗에쿼티가 추천한 사외이사 신규 선임 예정… 자추위가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

“보안 미흡”… 금융당국, 카카오손해보험에 개선안 제출 요구

머니S

금감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에 대해 정보기술 보안에 대한 개선 요구… 당초 카카오페이손보 이달 중 출범 예정이었으나 설립 미뤄질 가능성 제기
정보기술 보안에서 아직 물적 설비 구축이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개선 요구… 사측은 조만간 금감원에 제출 예정… 최근 류영준 대표 면퇴 사건도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아…

한화손해보험 경영정상화로 강성수 연임 파란불, 자본확충 과제 남아

비즈нес포스트

강성수 대표이사, 경영정상화 이뤄내며 연임에 힘을 받아… 한화손보, 작년 말 끝으로 경영관리대상에서 해제… 2020년 경영관리대상에서 편입된 지 2년만
1월 말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열리고 연임 여부 정해질 것으로 전망… 연임 여부가 정해지면 후순위채권 발행이나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에 나설 예정

증권사도 암호화폐 커스터디 물결인다

뉴시스

미래에셋증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NFT 등 가상자산 산업에 나서기로.. TF를 통해 수탁사업을 전담할 신설 법인 출범 논의 중
은행권은 합작투자 방식을 활용… 미래에셋증권 역시 합작투자 방식으로 가상자산 수탁 전문회사 설립 전망… 향후 법적 실체가 명확해지면 직접 투자 나설 가능성도…

공매도 활개치는데…금융당국 “올해 상반기 전면 정상화 검토”

핀포인트뉴스

금융당국, 올해 상반기 내 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 공매도 금지 기간이 2년을 넘어가고 6월 있을 MSCI 선진국 지수 워치리스트 편입에 대비하려면 상반기 내 공매도 전면 재개 필요
다만 공매도로 한국 증시의 추가 하락 우려도 커져… 금융위원회는 거시경제 여건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 시기를 검토 중으로 언급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